

결 정

2018 - 3044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
2.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
3.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중 천

주 문

연합뉴스(yonhapnews.co.kr) 2018년 1월 12일자 「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...호주, 부검키로」 기사의 사진, 일간스포츠(isplus.joins.com) 1월 13일자 「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...호주, 부검키로」 기사의 사진, 브릿지경제(viva100.com) 1월 12일자 「호주서 공원 기둥에 못 박힌 채 죽은 '코알라' 발견... "끔찍한 동물학대" 분노」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'주의' 조치한다.

이 유

1. 연합뉴스, 일간스포츠, 브릿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연합뉴스)= 『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...호주, 부검키로』

송고시간 2018/01/12 11: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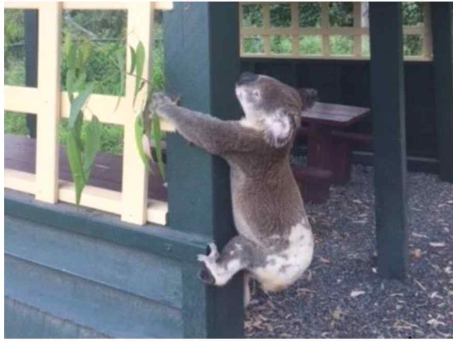
지독한 동물학대에 '경악'...캥거루 등 상대 종종 발생

(시드니=연합뉴스) 김기성 특파원 = '호주의 얼굴'과도 같은 코알라가 목재 기둥에 나사못에 박힌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호주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.

동물보호단체는 부검해 코알라가 죽은 이유를 밝히기로 했다.

1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'코알라 레스큐 퀸즐랜드'(Koala Rescue Queensland)는 지난 10일 제보를 받고 브리즈번 북쪽에 있는 한 전망대 정자의 목재 기둥에 매달려 죽어 있는 코알라를 발견했다.

이 단체 관계자들은 곧 코알라 발들에 건축용 나사못들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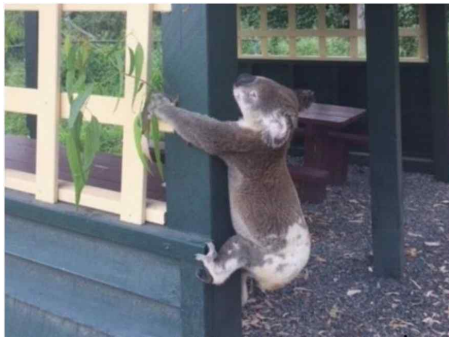
기둥에 매달려 있는 채 죽은 코알라(출처: 코알라 레스큐 퀸즐랜드(Koala Rescue Queensland))

(하락) cool21@yna.co.kr』

<<http://www.ychnews.co.kr/bulletin/2018/01/12/020000000AKR20180112074200098HTML?input=1195>>

(일간스포츠)= 『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…호주, 부검키로

[연합] 입력 2018.01.13 09:24



(시드니=연합뉴스) 김기성 특파원 = '호주의 얼굴'과도 같은 코알라가 목재 기둥에 나사못에 박힌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호주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.』

<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22283019&ctg=13&tm=i_b>

(브릿지경제)= 『호주서 공원 기둥에 못 박힌 채 죽은 '코알라' 발견…"끔찍한 동물학대" 분노

입력 2018-01-12 15:58 수정 2018-01-12 15:58



기둥에 매달려 있는 채 죽은 코알라(코알라 레스큐 퀸즐랜드 페이스북 캡처)

호주의 한 공원에서 코알라가 목재 기둥에 나사못에 박힌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돼 호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BBC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, 동물보호단체인 ‘코알라 레스큐 퀸즐랜드’(Koala Rescue Queensland)는 지난 10일 제보를 받고 브리즈번 북쪽에 있는 한 전망대 정자의 목재 기둥에 매달려 죽어 있는 코알라를 발견했다.

당시 코알라는 양발에 건축용 나사못이 박혀 기둥에 고정돼 있었다.(하락) 오수정 기자 crystal@viva100.com

<<http://www.viva100.com/main/view.php?key=20180112010004761>>

※참고

일간스포츠
나눔스퀘어 Light Extra Bold 추가!
01-13 10:28 편집

“걸그룹, 임신 증상...” 충격 실태 드러나 '파장'
윤식당2 시청률 경신 | 유재석 자소서 | 김성민 명품죽 | 낸시랭 강경대응

EXCLUSIVE
· 단독 김선영, 김병 '특별출연' "놀랄 만한 캐릭터"
· 단독 소녀시대 유리, '마음의 소리'2 캐스팅

HOT PHOTO
"옷 벗어 던지고..." 정선아, 화끈 무대
[스토리is] 이수현, 골든 비하인드컷
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...
AOA 지민, '해이'로 파격변신 예고

COLUMN
· 미 4천800억 적자 주인은 20세 청년 '화재'
· 남영동서술대에 남은 박종철의 흔적들

<캡처시각 18. 1. 13. 11:24>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적시 기사는 호주에서 코알라가 나사못에 박혀 숨진 채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. 그러면서 기사에 못에 박힌 코알라 사진을 함께 실었다. 특히 일간스포츠는 이 사진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올렸다.

동물학대를 고발한다면서 그 결과물인 잔혹한 사진을 함께 올리는 것은 클릭 수를 높이려고 선정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. 게다가 어린이·청소년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

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, 제13

조 「어린이 보호」 ④(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 기자는 성범죄, 폭력 등 기타 위법
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
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.

제13조 「어린이 보호」 ④(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) 언론인은 폭력, 음란, 약물사용
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
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.